	<h2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참 고 자 료</h2> <p style="text-align: center;">12.23(수) 12:00부터 보도 가능, 단 지면은 석간 보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창조 금융</li> <li>• 따뜻한 금융</li> <li>• 튼튼한 금융</li> </ul>
<b>작성부서</b>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핀테크 지원센터	<b>책 임 자</b> 김동환 과장(02-2156-9490) <b>담 당 자</b> 윤덕기 사무관(02-2156-9491) 핀테크 지원센터(031-8016-1166)	
<b>배 포 일</b> '15.12.22(화) <b>배포부서</b> 대변인실(2156-9543~48) <b>총</b> 10대		

### 제 목 : 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 국민,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한다” 74.2%
- 핀테크 기업, “정부의 핀테크 정책은 합격점” 73.1%
- 금융회사, “핀테크 경쟁 가속화에 따른 혁신 노력 강화”

#### I. 실시 개요

-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핀테크 육성」 정책의 시행 1년을 맞아
  - '15.11.2일부터 11.13일까지 일반 국민,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집중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실시

#### <참 고> 실태점검 개요

-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센터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분석기관) 금융연구원
- (조사기간) '15.11.2일 ~ 11.13일
- (조사대상) ① 일반국민(1,000명), ② 이해관계자(106명), ③ 전문가(18명)

설문조사(한국리서치) : ① 일반국민 ② 이해관계자

집중 인터뷰(한국리서치) : ① 핀테크 기업 ② 금융회사 ③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금융연구원)

## II. 조사결과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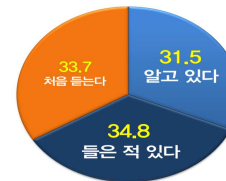
### 1 일반 국민

- ◇ 본격적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높은 수준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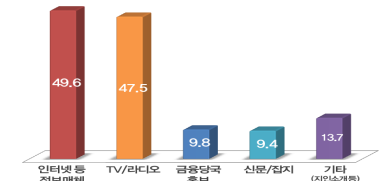
#### 가.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약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알고 있거나 핀테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핀테크에 대한 인지도】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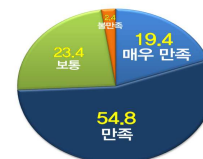


- ➔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노력 등이 언론 등에 집중 부각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

#### 나. 핀테크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

-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의 약 74.2%가 편리함, 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평가

【핀테크 서비스 이용 만족도】



【이용 만족 이유】



➡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 인터넷전문은행('16년중), 클라우드 펀딩('16.1월),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11월), 계좌이동서비스(10월), 간편결제(26중), 간편송금(8중) 등

## 2 핀테크 기업

◇ 정부의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핀테크 정책과 핀테크 지원센터 상담서비스 등에 크게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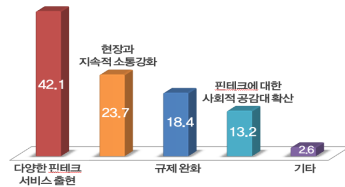
### 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크게 만족

□ 정부의 정책에 대부분 만족(73.1%)하고 있으며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강화 노력을 높게 평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 만족도】



【만족이유】



○ 세부 정책과제 중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금융권 공동 플랫폼 구축에 대해 높은 평가

【주요 정책별 인지도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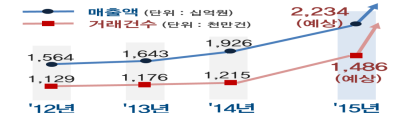
정책명	인지여부		만족도		
	인지	모름	만족	보통	불만족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76.9	23.1	62.5	32.5	5.0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100	-	71.2	17.3	11.5
클라우드 펀딩법 마련	94.2	5.8	44.9	40.8	14.3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100	-	57.7	32.7	9.6
금융권 공동 플랫폼 구축	80.8	19.2	64.3	19.0	16.7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100	-	65.4	15.4	19.2

➡ 실제 전자금융업자 수, 전자금융업자 매출액, 핀테크 스타트업체수 및 관련 산업 종사자수 등 핀테크 산업의 외형이 크게 성장

전자금융업자 및 업종수('12~'15)



전자금융업자 매출액 및 거래건수



핀테크 스타트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수\*



\* 한국핀테크포럼 등록수('15) \*\*금융보안원 추정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단위: 십억원)



### 나. 핀테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 핀테크 지원센터

□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지도, 추천의향 등 핀테크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높은 수준(65.3%)

【핀테크 지원센터 만족도】



【상담 경험】



【추천 의향】



○ 핀테크 지원센터의 다각적 지원이 없었다면 이미 사업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특히, 금융회사와의 연계 지원,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에 대해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

- ▶ “스타트업들이 금융기관에 가면 시장점유율이 얼마야, 자본금은 얼마야 이렇게 물는데 지원센터는 아이디어를 물으니까 정말 좋아요” (00핀테크 기업 대표)
- ▶ “핀테크 지원센터가 있어서 이만큼 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원센터 없이 저 혼자 두드리고 다녔다면 아마 담당자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00핀테크 기업 대표)
- ▶ “관련 담당자들을 한 번에 모아 놓고 기술을 시현할 수 있는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큰 장점이지요” (XX핀테크 기업 대표)

➡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그간 상호 이해가 부족했던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간 상호 소통·협력이 크게 강화\*\*

\* 협회·유관기관, 은행, 카드, 증권, 보험, 금융위, 금감원 등 35개 기관 참여

\*\* 총 254개 기업에게 금융회사 연계, 보안컨설팅, 입주공간 등을 제공

- 핀테크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15년에 15개사가 신규 창업 및 사업을 확대하여 유망기업으로 성장 중

#### 다. 금융회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

-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 정책 추진 이전에 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
- 다만, 새로운 보안·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 및 금융회사 내에 글로벌 핀테크 기술을 이해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소 아쉬운 점으로 평가

▶ “각 금융권에서 핀테크 담당부서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서 글로벌 핀테크 동향을 직접 보고 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핀테크 업체 대표이사)

### 3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에 비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경쟁과 혁신 분위기 속에서 핀테크에 대한 보수적 인식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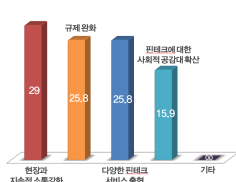
#### 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만족

- 핀테크 정책에 대한 금융회사의 만족도는 약 57.4%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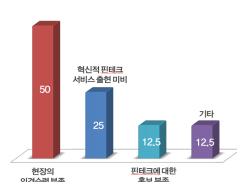
【핀테크 정책 만족도】



【만족이유】



【아쉬운 점】



▶ “IT금융융합지원방안인가 그게 처음 나오고 정말 스캐줄대로 움직이더군요. 좀 놀랐습니다. 정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0은행 담당자)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등을 높게 평가

【주요 정책별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명	인지여부		만족도		
	인지	모름	만족	보통	불만족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87.0	13.0	61.7	29.8	8.5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94.4	5.6	62.7	19.6	17.6
클라우드 펀딩법 마련	90.7	9.3	59.2	32.7	8.2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98.1	1.9	47.2	45.3	7.5
금융권 공동 플랫폼 구축	83.3	16.7	51.1	35.6	13.3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96.3	3.7	63.5	28.8	7.7

#### 나. 금융회사는 변화 중 : 소극적 → 적극적

- 금융회사들은 금융개혁과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경쟁 가속화로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
- 이에 따라 핀테크 전담조직 신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제휴 등 자체 혁신 노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

▶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다가 누군가 치고 나가면 우리 고객들을 빼앗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XX투자증권 담당자)

▶ “00은행도 인큐베이팅센터를 개소해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내부지분 투자라든지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조직은 웬만한 은행들에 다 있어요” (00은행 담당자)

▶ “보험쪽은 사실 연초까지는 큰 움직임이 많이 없었는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나오고 하반기 들어서 많이 변했어요” (△△보험 담당자)

➡ 핀테크 전담조직 신설(52개사), 자체 육성 프로그램\* 마련 등 핀테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 가속화

\* 신한 퓨처스랩, NH농협은행 핀테크 협력센터, KB 핀테크HUB센터 등

\*\* 핀테크 전용펀드 조성(200억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직접 투자 (OO은행 및 자회사 → 7개 기업, 20억원) 등

- 금융회사의 다각적 지원으로 그간 사업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 가능

#### 다. 핀테크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중요

-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핀테크 육성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정부의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입장

▶ “사실 저희 조직 내에서도 이거를 센터로 갈거나 임시 TF로 갈거나 아직도 고민 중인 부분이 있어요”(□□유관기관 담당자)

- 상당수 금융회사 관계자는 정부는 디테일한 관여보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생태계 구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3월), 핀테크 지원협의체 출범(4월) 등 핀테크 생태계 기반 등을 既 마련

- 앞으로도 지속적 규제개선과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해 ‘핀테크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 4 핀테크 전문가

◇ 정부의 핀테크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앞으로가 더욱 중요

#### 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부분 공감

-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평가

- 다만, 핀테크 육성이 향후에도 핀테크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

▶ “핀테크 정책방향은 지금 금융위가 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OO대학 교수)

#### 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

-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기술 수요를 늘려줄 것으로 평가

▶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유행하는 OO페이로는 부족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발전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XX법무법인 변호사)

#### 다.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 구축이 필요

-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핀테크 발전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 그러나, 금융기관 인력구조<sup>1)</sup>, 벤처 생태계 미성숙<sup>2)</sup> 등으로 시장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

1) 금융기관 핀테크 사업 담당자가 기술과 사업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Digital Strategist의 부재

2) 핀테크 기업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IPO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필요

-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 “외국 사례를 보면 다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 주도로 가고 있어요. 민간이 더 따라가줘야 해요” (△△대학 교수)

▶ “우리나라는 마켓 자체가 너무 작은 상황이다 보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가 없으면 자생적으로 될 하기가 어려워요”(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담당자)

## 라. 성공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현이 중요 과제

- ☐ 핀테크의 성공은 결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에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좌우한다고 평가
  -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및 신속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 ▶ “핀테크 업체가 은행관계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기술력으로는 냉정히 말해 소비자도 설득시키기 힘들다고 봐야 해요” (00대학 교수)
- ▶ “금융서비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려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대학 교수)

## III.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 종합 평가 >

- ☐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66.3%)과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4.2%)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 ☐ 조사대상 핀테크 기업들의 73.1%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정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 다양한 서비스 출시(34.8%), 소통 강화(26.1%), 규제완화(21.7%) 노력 등을 높게 평가
- ☐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계좌이동서비스 등 금융산업 내 경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핀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려는 모습
- ☐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의 지원과 성장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 \* 핀테크 지원센터 만족도 : 64.4%, 핀테크 지원센터 추천 의향 : 76.8%

### < 향후 과제 >

- ☐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간 인식의 간극이 다소 존재
  -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일부 남아있다고 평가
- ➔ 보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혁신을 중시하는 핀테크 기업간 상호 소통과 이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조사대상자들은 인프라 구축,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
- ➔ '16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인 핀테크 육성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